

STEP 03 |

7500만 고객...인터넷뱅킹 전성시대

광주은행 이용 27만명 전년보다 22.2% 늘어

광주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2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은행과 한국은행이 내놓은 '인터넷뱅킹 이용현황'에 따르면 2001년말 광주은행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2010년에 비해 2만 5497명(22.2%)이 늘어난 26만8148명에 달했다.

고객별로는 개인 25만2855명으로 2010년보다 2만3877건(10.4%)이 늘었으며, 법인도 2010년보다 1620건(11.8%)이 늘어난 1만5293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을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0

년에 비해 3만8건(40.9%)이 증가했다. 개인은 21만2034건으로 2만5902건(13.9%)이 늘었고, 법인은 2010년보다 4106건(27.0%)이 늘어 1만 9332건이었다.

지난 1월 하루 평균 인터넷뱅킹 이용건수는 41만7216건이었으며 이용건수 가운데 조회가 18만79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행이체 2만 3724건, 당행이체 1만5970건, 대출·편드등 기타가 18만5583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은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철저한 고객 이용현황 파악과 모니터링, 24시간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은 7천 500만명에 달했다. 2011년 말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2010년에 비해 832만명(12.5%) 늘어난 7482만명에 달했다. 이는 모바일뱅킹 고객은 물론 한 고객이 여러 금융기

관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것을 합산한 수치다.

고객별로는 개인 7063만명, 법인 419만개로 집계됐다. 인터넷뱅킹을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0년보다 13.1% 증가한 2208만개다.

하루 평균 인터넷뱅킹 이용건수와 금액은 3902만건, 31조9172억원이었다. 이용건수 가운데 조회서비스가 3428만1000건(87.8%)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이체 474만건(12.1%), 대출신청 1400건 등이었다.

인터넷뱅킹 가운데 모바일뱅킹 이용건수와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전년의 배가 넘는 106% 늘어난 770만건에 달했고, 금액은 57% 증가한 6천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 비중은 이용건수를 기준으로 2010년 11.2%에서 2011년 19.7%로 올라섰다.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2010년 1575만명에서 2011년 2372만명으로 50.6% 불어났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2010년에 비해 775만명(297%)이나 급증한 1036만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찰~ 떡 신난다 한국나들이"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직원들이 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떡메치기 체험 행사를 마련한 가운데 외국인이 떡을 메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기업, 지역상권 독점 말라”

중소상인연합 롯데마트 추가 입점 시도 철회 촉구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잇따른 광주 입점 추진을 놓고 지역중소상인들이 '제발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6일 광주 광산구 롯데마트 수완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추가 입점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북구 신용동 첨단 2지구 부지 중 8천500여㎡를 사들이고 지난 3일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5천134㎡)의 창고형 대형인매장이 또 들어선다면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건축계획심의를 구청에 요구했다. 입점 추진지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2km 떨어진 첨단 1지구에 이미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는데다가 동쪽 1km 거리에도 롯데슈퍼가 있어 중소상인들은 상권 밥을 우려하며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롯데아웃렛 수완점이 2월 중 확대개점을 준비해 지역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첨단 2지구 북구 신용동에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이 또 들어선다면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광주의 고용상황을 볼 때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SSM까지 업종과 업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의 과도한 진출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유통업체의 개설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정, 대형유통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막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1개 기업의 지역 내 시장지배 제한을 50%에서 2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해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추진 중 우회 입점 논란, 건축허가·취소 등 갈등으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고급 워킹화 잘 닳는다

아디다스·프로스펙스 중저가 보다 취약

아디다스와 프로스펙스가 만든 10만원대의 고가 워킹화가 중저가 브랜드보다 밀창 마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0개 워킹화 제조·수입사의 12개 제품에 대한 굽곡, 밀창 마모도, 접착 박리, 미끄럼 등 5개 부문 시험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 조사를 보면 아디다스의 'aSTAR Salvation 3W' 제품은 시중 최고가(16만9천원)임에도 갑피(발등을 덮는 섬유부분)와 중창(밀창과 갑피 사이 부분), 중창과 밀창, 갑피와 밀창의 접착력이 낮았다. 특히 중창과 밀창의 접착도는 3.4N/mm, 갑피와 밀창의 접착도는 3.7N/mm로 최저였다.

미끄럼에 취약했다. /연합뉴스

퇴직연금시장 급팽창 올해 70조 성장 예상

작년 퇴직연금 시장이 50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9조9168억원에 달해 전년 말보다 71.3%(20조7696억원) 늘었다.

금융권별로 온행이 49.6%(24조 3000억원)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커고 생명보험(25.6%), 증권(18.0%), 손해보험(7.8%)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75.2%였고 확정기여형 16.2%, 개인형 IRA 7.3%, 기업형IRA 1.2% 등이었다. 상품은 원리금보장형이 92.4%로 압도적이며 실적배당형 5.4%, 기타 2.2%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5년 12월 도입 당시 163억원에 그쳤던 것이 2006년 말 8천억원, 2007년 말 3조원, 2008년 말 6조6000억원, 2009년 말 14조원, 2010년 말 29조원에 이어 작년 말 50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13만9151개사(도입률 9.2%)이며 가입자 수는 328만3608명(가입률 36.0%)이다. /연합뉴스

“수수료 안낮추면 신한카드 거부”

자영업연합 20일부터

전국 자영업 연합체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업계 1위 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실력 행사에 들어간다. 20일부터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할 때 신한카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연합체에는 유흥업소, 학원, 카센터, 보석상, 세탁소,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대부분 업종이 포함돼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카드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신한카드를 영업 현장에서 거부하기로 했다.

신한카드가 표적이 된 것은 카드업계 1위 회사로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한카드 거부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진관, 카센터, 공인중개사, 학원, 숙박업, 귀금속점, 학생복 판매점, 마사지업, 노래방, PC방, 종소 쇼핑

몰, 피부미용업, 온천, 세탁업 등 60여 개 업종 종사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해당 업소는 전국에서 100만여 곳에 달한다.

유권자시민행동은 회원업체에 '20일부터 신한카드 거부한다'는 안내문

을 6일부터 배포, 업소 입구와 카드 결제기 옆에 부착하도록 했다. 신한

카드에도 이런 내용의 서한을 금주에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대백화점 저소득 학생 교복 지원

현대백화점 광주점(점장 이재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구 경신중학교에 저소득층 신입생 20명에게 교복을 지원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힐끗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빼거나 진 묘, 동절기장을 거치며 봉고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이 달하고 있습니다.

● 비판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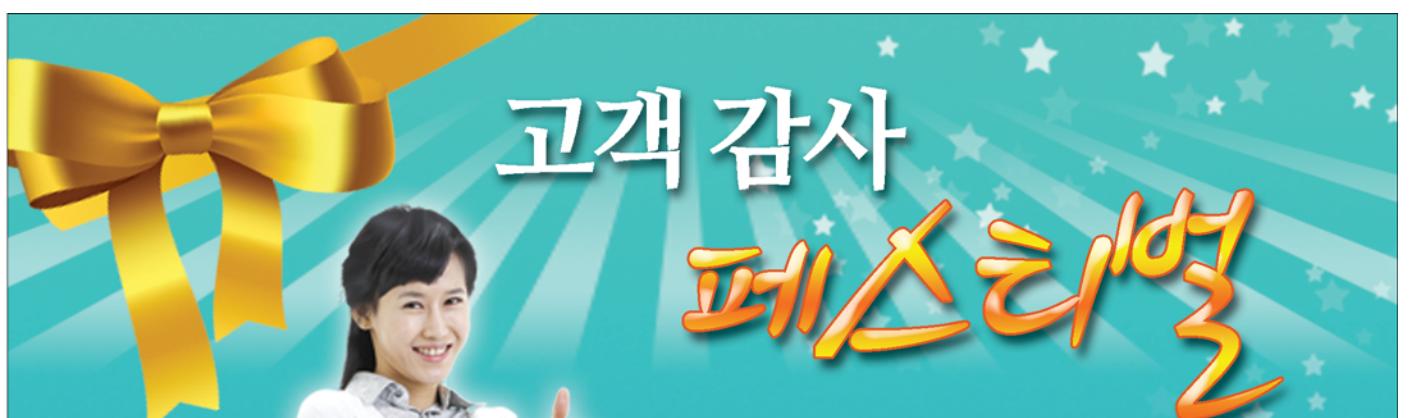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너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투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서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행사1. 복합기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27인치 LG LED TV(모니터)를 선물합니다.

행사2. 행사기간 내 신도리코 제품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행사3. 행사기간 내 신도리코 A3 복합기 보상 판매

(행사 모델 : 신도리코 D400/401/402, N600/601/602, DGwox4300)



신도리코 광주지점 샤프상사 전화문의 (062)511-8633~4

